

## 문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변천



여 인 갑

인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발명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로 혁명을 일으킨 주도 기술이 증기기관의 발명에서부터 시작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뒤를 이어 철강의 대대적인 활용으로 배나 기차와 같은 다량 수송 수단이 발명되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나 미지의 땅에 까지 수송, 여행, 정복이 가능해졌다.

---

약력 : •83~85 삼성전관 컴퓨터사업부 이사 •85~91 삼성휴렛팩커드(주) 전무 •91~95 한국데이타제너럴(주) 사장 •현재 지멘스정보시스템 대표이사 •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부회장

또한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인류는 밤의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으며 전자로 인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많이 발명되어 이제는 전자 없이는 단 1분이라도 살아 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 깊숙한 곳 까지 전자가 침투해 있는 것이다.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10년 되지 않는 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든지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와 슈퍼하이웨이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어떤 기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혁명이라 불리는 현재는 정보기술에 의하여 제조, 물류,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해 왔으며 특히 생산을 위한 현장 작업 위주에서 서비스를 위한 사무실 업무 위주로 작업 형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해결을 여하히 쉽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즉,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 정보 은행, 지적 재산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보안과 환경기술이 신기술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부응하여 다가오는 시대는 지식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첫째, 기업이 지식과 지적자산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둘째, 기업이 지속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식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은 정보화 지식에 의해 주도 될 것으로 확신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해 왔던 정보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에서 지식 도시를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로 변천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역시 홀로 살 수 없는 동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기술의 변천인 것이다.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지식공유에 이바지해가며 살아갈 때이다.